≪ 장애인 전문체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≫

호주 휠체어럭비협회 국제교류 결과 보고

1 방문 개요

○ 방문목적: 2025 호주 National Championships {Division 1} 출전

○ 기　　간: 2025. 5. 24.(토) ~ 6. 3.(화), 9박 11일, 애들레이드

※ 출국: 5. 24.(토) 인천공항 출발(23:50)

※ 입국: 6. 03.(화) 인천공항 도착(09:50)

○ 참여인원: 13명(휠체어럭비 실업팀 7, 선수 보호자 3, 사무처 3)

※ 휠체어럭비 실업팀: 감독(1), 선수(5), 주무(1)

구분	성명	비고
감독	최재웅	
선수	전경민	스포츠 등급 2.5 포인트
	김영훈	스포츠 등급 2.0 포인트
	박우철	스포츠 등급 2.0 포인트
	박지은	스포츠 등급 2.0 포인트 → 1.5 포인트
	김태윤	스포츠 등급 1.5 포인트
주무	김재호	

※ 보호자: 강규민(전경민 선수 활동보조), 유현미(김태윤 선수 母), 제지영(김영훈 선수 배우자)

※ 도장애인체육회: 최재섭 부장, 유수영 팀장, 최성민 대리

2 1부 리그 출전 결과 「5위」

【1부 리그 출전, 총평】

○ 호주 1부 리그 클럽팀에 영국, 미국, 일본 등 월드클라스 용병 선수들을 출전시켜 치열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충남 실업팀은 하이포인트 선수 없이 단 5명의 선수로 대등한 경기를 펼침

○ 이번 호주 교류는 1부 리그 총 5개의 클럽팀 중에서 최소 1승을 거두어 순위전 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, 예선전 이틀째에 연속 2경기를 가지며 체력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쉽게 전패함

○ 한편, 대회 전 연습경기를 독일 및 네덜란드팀과 함께 하며 국제 경쟁력을 가진 선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음

❍ 하이포인트 및 교체선수 부족과 등급분류 문제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호주 교류전을 통해 비록 경기는 졌지만 많이 배웠으며 힘들고 지쳐도 선수들 간 서로 믿고 하나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유익한 교류가 됨

【예선 1차전(5.29.(목)12:25】

1부리그 상대팀	경기 결과		출전 선수
Victoria Thunder	58:47	패	전경민, 김영훈, 박우철, 박지은, 김태윤

【예선 2차전(5.30.(금)13:15】

1부리그 상대팀	경기 결과		출전 선수
Queensland Cyclones	53:47	패	전경민, 김영훈, 박우철, 박지은, 김태윤

【예선 3차전(5.30.(금)15:35】

1부리그 상대팀	경기 결과		출전 선수
WA Enforcers	55:42	패	전경민, 김영훈, 박우철, 박지은, 김태윤

【예선 4차전(5.31.(토)10:05】

1부리그 상대팀	경기 결과		출전 선수
NSW Gladiators	62:50	패	전경민, 김영훈, 박우철, 박지은, 김태윤

3 앞으로 훈련 계획

❍ “체력 강화 및 공격 옵션 추가”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고스탑, 셔틀런, 체어스킬 훈련 등을 통한 체력강화, 인바운드 진행 시 1·4번 세팅 말고 공간을 만들거나 크로스할 수 있는 공격 옵션 훈련 진행

❍ “수비 전술 훈련” 하이포인트 선수를 묶어두는 트랩체어포지셔닝, 트랩 이후 코트 상황을 보고 드롭 타이밍 및 롱자리에서 라인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전진을 막는 라인수비 등 패턴 훈련을 통해 수비 조직력 강화

4 연습경기 및 리그대회 사진

▼ 독일팀과 연습경기

▼ 1부 리그 예선전